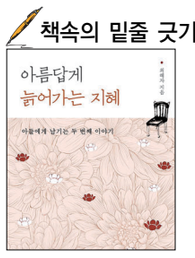
책속의 밑줄 긋기



아름답게 늙어가는 지혜 최혜자 지음/운주사 펴냄/1만 5천원

"삶이란, 인생이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로 살 만한 값어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리고 살아 있다는 것은 역시 신나는 일이다."
〈La vie est belle〉

이 책은 단순히 사상이나 가르침을 소개하는 데에 머물지 않는다. 특히 저자는 공자(유교)의 윤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가르침은 높게 보는 반면, 노자(도교)의 '무위'의 가르침은 현실과 동떨어질뿐더러 인간에 대한 애정(자비, 사랑)도 없는 현실도피적인 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붓다(불교)에 대해서는 모든 사상을 아우르는 인류의 안내자라고 평가하고, 주요 사상에 대해 별도로 다룬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물론 공자나 노자, 붓다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당당하고 후회없이 살라는 것이다.

전국 사찰과 문화재는 아름다운 '詩' 그 자체



화엄사 탑 전경. 김태식 사진



화엄사에 가고 싶다

이재호 지음/김태식 사진/씨피엔 펴냄/1만7천원

해직 언론인 출신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가 틈틈이 찍은 문화재 사진에 이재호 작가의 글이 더해져 한권의 시집으로 묶여져 나왔다. 제목은 〈화엄사에 가고 싶다〉이다.

이 시집은 국보 76호인 화엄사 각황전을 비롯해 전국 사찰과 유수의 문화재를 주제로 한 다소 평범하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시집으로서는 드물게 34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도 눈길을 끈다.

저자인 이재호 작가는 머리말을 통해 "화엄사에 가고싶다란 제목을 달고 보니 시 읽는 분들이 불교와 특정 사찰을 좋아하는 독자로 한정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실상 나의 모든 글은, 시는 절간에서 순간 포착하듯이 써 내린게 대부분"이라고 고백한다.

실제로 작가들은 구례 화엄사 뿐 아니라 공주 마곡사, 고창 선운사, 남양주 봉선사, 보성 유신리 일월사, 남한산 성불사, 청도 대비사 등 문화재 답사 및 조사 때문에 전국 모든 사찰을 순례하다시피 했다.

두툼한 책의 두께와 절간이라는 특별한 배경 때문에 언뜻 딱딱해 보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집에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사랑도 담겨 있고, 이별도 담겨 있어 읽는 독자들의 입맛에 부드러움을 더한다.

"가을이 오면 화엄사로 가리라. 화엄원 토방아래 느릿한 늙은 햇살 붙들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겸손하기 그지없는 감빛 석양을 바라보리라."

〈화엄사2 中에서〉

"침묵의 선셰, 달마산 자락 사람좋은 절간 미황사/가을이면 가을로 빚어 내놓은 쓸쓸함/겨울이면 겨울로 입술로 입술 호호불며 걸어가고픈 외로움/봄이면 금강스님 닮은 꽃들이 움을 트는 절간/사랑을 하려면 이 미황사로 오라"

〈미황사 中에서〉

또한 여기에 각 사찰이 간직한 고유한 분위기와 풍광을 잘 담아낸 김태식 기자의 사진은 마치 직접 그 장소에 가서 시를 읽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더해준다.

특히 이재호 작가는 7~8년간 전국에 산재한 사찰의 문화재 답사를 다니면서 절간 마루에 앉아서 혹은 한여름 나무 아래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스케치한 글을 모아 시집 〈화엄사에 가고 싶다〉를 엮었다고 한다.

시 한편을 통해 바라보는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시 한편을 채색하면서 느꼈던 사랑, 그리움, 또한 어울림, 계절의 아름다운 빛깔을 책 한권에 담아내 독자들이 문화재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였다.

'화엄사'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사찰 문화재는 관람료 문제부터 시작해서 종교적 이해타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국민들과 괴리감이 적지 않다. 오랫동안 문화재 보존운동을 펼쳐온 이재호 작가는 이 시집을 통해 문화재를 종교라는 틀에 가두지 말고 우리 민족의 숨결을 간직한 '아름다움' 그 자체로 이해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김태식 기자와 이재호 작가는 "문화재는 아름다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문화재가 우리들의 삶 속에 한편의 시이기를 바란다"고 시집을 출간하는 소감을 전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달라이 라마, 예수를 말하다



선한마음—달라이라마의 성경 강의

달라이라마/류시화 옮김/불광출판사 펴냄/1만 5천원

존 메인 신부(1926~1982)는 로마가톨릭 사제이며 아일랜드계 베네딕도회 수도자로, 사막의 교부들에서부터 이어진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교에 기도문과 만트라 등을 이용한 명상법을 도입했다. 1975년 메인 신부는 런던 서부에 있는 자신의 수도원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교 명상 모임을 가졌는데, 이것이 세계 그리스도교 명상 공동체(WCCM: World Community for Christian Meditation)의 모태가 되었다. 이 모임은 현재 영국,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을 포함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약 2,000개의 그룹이 존재하며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활동중이다.

신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를 기리기 위해 1984년부터 해마다 '존 메인 세미나'가 열려 지금에 이른다. 이 세미나에서는 영적 추구에 평생을 바친 다양한 인물들을 초청해 영성과 기도, 명상, 타종교와의 대화 등을 주제로 강연을 듣는다. 1994년, 존 메인 세미나는 매우 특별한 자리를 준비했다.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이며 정신적 스승인 제14대 달라이 라마를 초청해 '선한 마음: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불교도의 견해(The Good Heart: A Buddhist Perspective on the Teaching of Jesus)'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 가르침에 대한 달라이 라마의 생각을 듣기로 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이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인 달라이 라마는 북런던에 있는 미들섹스대학 강의실서 가톨릭 대주교에서 인디언 원주민 주술사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의 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강의는 매우 인상적이고, 독특하고, 웃음 넘치고, 감동적이었다. 이 책은 3일 동안 진행된 그 강의의 생생한 기록이며, 출간 직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책은 늘 접하는 성서의 가르침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한다. 그뿐 아니라, 강의 내내 풍기는 상대방을 향한 존중심과 부드러운 유머, 가톨릭 신부와의 진심 어린 대화가 책을 읽는 동안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달라이 라마는 시종일관 그리스도교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사과하면서 겸손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몇 페이지만 읽어도 타종교에 대한 주제넘은 분석이나 외교적인 타협이 아닌, 애정 어린 시각으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바라보고 있음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 이 책은 서양에서는 〈선한 마음(The Good Heart)〉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선한 마음'은 신약성서뿐 아니라 불교 경전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 흔들림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서도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모습, 선한 마음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담긴 모습이 이 책이 주는 감동이다. 그리스도교 단체가 타종교의 지도자를 초대해 성서의 핵심 복음에 관해 서로 교감하고 깨우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그 자체가 선한 마음이다.

"우리 자신의 영혼의 요구에 절실히 와닿는 종교를 만나야 하지만, '종교는 조용한 혁명'이라는 말을 나는 좋아한다. 종교는 외침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진리를 실천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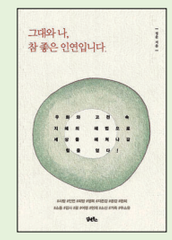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클릭! 이 책

고통 이겨내고 수용하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철듦

그대와 나, 참좋은 인연입니다

정운 지음/담앤북스 펴냄/1만 6천원



정운 스님은 대학서 학생들을 만나 소통하는 스승이자 경전을 연구하는 학자다. 이 책은 정운 스님이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며 풀어 낸 에세이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우화, 중국 고전 등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야기들도 군데군데 있어서 재미를 준다. 불교 경전의 명구도 있어 마음에 교훈을 준다. 때로 스님 자신의 경험을 꺼내기도 한다.

제 1부 〈더불어 함께 사는 인연 그리고 공감〉은 관계나 사람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 인연이라는 키워드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만큼 좋은 인연과 악연, 길지 짧을지 알 수 없는 인연들을 대하는 방법을 세세히 알려준다. 제 2부 〈오만과 편견 깨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혐오, 편견 등을 지적하면서도 약자에 대한 따스한 시선을 보내는 챕터이다. 3부 〈나답게, 행복하게〉는 자아와 자신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보내는 응원이며, 4부 〈자신 있게, 세상으로〉는 미래와 취업 등 진취적인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주제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모두 우리네 삶이 주축이라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법인등기번호 : 001797

(사) 대선불교 조계종 (화합종단 구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종 정 : 현묵당 혜승
승정원장 : 적연당 운암
총무원장 : 적공당 현덕
원로위원 : 법희
총무부원장 : 월정사 보각
비구니회장 : 법성

교육원장 : 광덕
포교원장 : 대안
총무부장 : 혜동
사회부장 : 영각
감사부장 : 보혜
문화부장 : 혜명
재무국장 : 지현
중앙종회 : 경성 보천 도경 원명 보찬 보국 경덕

부산종무원장 : 보경
인천종무원장 : 도만
제주종무원장 : 법송
사무국장 : 준범
법사 : 남산

창건주 교임 :
성주사 : 도옹
보덕사 : 보현
금탑사 : 법화
안심사 : 태안
약사암 : 법연
미타사 : 보광
삼광사 : 문진수

종도모집

-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이어갈 종도님, 법사님, 창건주를 모십니다. 연락주십시요.
- 대선불교 총무원에서 포교방편 실전을 강의 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謹賀新年

(사)대선불교 조계종 총무원(보리선원)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 6길 41-10 | 전화 054-974-8415 | 010-3007-5611